

월 08/08	선교	뒷면에 있는 선교지에 관한 기도정보 전체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자.
	통독	신명기 5장
화 08/09	기도	기준 없이 요동치며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통독	신명기 6장
수 08/10	기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지 살펴주시고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고쳐 주소서.
	통독	신명기 7장
목 08/11	기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잔인하고 흉악한 많은 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낙심되며 두려울 때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평안을 누리며 이웃들에게도 평안을 나누게 하소서.
	통독	신명기 8장
금 08/12	기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들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행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토	주일예배를 함께 준비합시다~

# 새길개혁신교회

## 가정 경건회 자료

2022-32호(8월 8일 ~ 8월 13일 ) Family Governor:.....



이번 주간에는 **선교지**에 관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꾸준히 기도해 주십시오.

## 유럽 대륙의 '코소보'(KOSOVO)를 위한 기도회



종교적으로 서로 얽혀 있다. 종교적 충돌로 발칸전쟁이 일어나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이들을 구하기 위해 나토의 평화유지군이 주둔하게 되었다. 복음으로 민족간의 갈등과 증오를 끝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기도하자.

**화요일.** 코소보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어둡다. 코소보에서 세르비아인과 알바니아 민족 간의 오랜 적대감은 1998~1999년에 코소보전쟁을 촉발시켰다. 이제 안정을 되찾고 평화는 왔으나 여전히 그 아픔은 치유되지 않았다. 공동의 증오가 해결되고 외국 군대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 코소보는 전쟁 이전보다 더 침체되고 낙후되어 회복이 어려울 만큼 경제가 위축되었으며 실업률이 70%에 이른다. 안정된 일자리, 소득이 보장되도록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자.

**수요일.** 코소보 알바니아계는 기독교인이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 명목상의 무슬림이다. 이슬람 극단주의가 증가하는 추세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의 대규모 재정 후원으로 급진적인 이슬람화로 몰고 가고, 이 돈으로 많은 모스크를 세운다. 반면에 폭도들은 교회를 훼손하거나 파괴하고 있다. 인종과 종교적 증오심이 가라앉고 무슬림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기도하자.

**목요일.** 코소보의 복음적 기독교회는 매우 적지만 성장하고 있다. 1998년 전쟁 발발 당시 80명 정도에 불과하던 신자가 현재는 2000명, 교회는 35개를 넘었으며 젊은 남성과 10대 청소년이 주를 이룬다. 인도적 차원의 해외 원조와 함께 교회가 우후죽순 생겨났으나, 또 많은 교회는 문을 닫은 상태다. 교회가 원네스되어 지속적으로 신자가 늘고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그래서 코소보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하자.

**금요일.** 코소보의 사역자들은 선교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OM 등의 선교단체는 어린이와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에서 많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제자훈련과 지도력 개발은 코소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역이며, 남성 사역자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슬람이 지배적인 이 땅에서 외국 사역자가 자유롭게 사역하기는 어려우므로 현지인 전도자가 일어나고 절대 제자가 세워져서 그들이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교회를 세우며 나가도록 기도하자.

**경제:** 유럽에서 가장 경제가 취약하다. 유고연방시절에도 연방 내 다른 나라의 보조금에 의존했으며, 제재와 빈약한 정책에 내전으로 입은 피해와 허약한 경제기반, 부패가 성장의 걸림돌이다. 해외 코소보인의 송금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정치 :** 세르비아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독립을 선언한 독립 상태이다. 세르비아에 대한 코소보 해방군과의 전 끝에, UN임시행정부가 관할하다 유럽 법치기구가 치안업무를 넘겼다. 세르비아는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종교: 이슬람 95.6%, 기독교 3.7%, 무종교 기타 0.7%**

**월요일.** 기독교는 코소보에서 길고 지속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스만투르크의 지배를 받으며 500년 동안 무슬림화되어 무슬림 인구가 95%에 이르게 되었다. 코소보는 기독교 국가인 세르비아를 증오한다. 알바니아계와 세르비아계는 인종과